



산캠핑에서

★라기대

태국에서의 마지막 5개월 간의 기록 >>> 그 두번째 이야기



목차

4월 일정

- English camp
- Royal Project at Inthanon
- Songkran
- CLP Campaign & Fundraising
- Town center Activities
- Black house & White temple

가족 소개

개인 에세이

4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English Camp with Rajabhat Univ.	2. English Camp with Rajabhat Univ.	3. English Camp with Rajabhat Univ. & Back to YMCA	4. Day off	5. Go to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6.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7.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8.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9.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10.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11.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12. Volunteers at the Royal project, Inthanon Mountain & Back to YMCA
13. Day off For Songkran Festival	14. Day off For Songkran Festival	15. Day off For Songkran Festival	16. Day off For Songkran Festival	17.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18.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19.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20.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21. Go to Chiang rai YMCA & Visit Chiang rai night life	22. Leaning about Chiang rai YMCA Social work(O.T)	23. Visit CLP Hospital	24. Prepare & Discuss about CLP Fundraising	25. Visit CLP Family house & 1 st CLP Fundraising	26. Town Center Language School Teaching
27. Day off Visit Black House & White Temple	28. Day Care Program	29. Day Care Program	30. Day Care Program			



English Camp



English Camp 일정

일정	프로그램	장소
4월1일	- Ice-Breaking - Team building ; 자기소개방법, 발음연습	at Lampang Rajabhat University
4월2일	- Chae Son National Park 방문 - Treasure hunt in national park	at Chae Son National Park
4월3일	- Building dam	at Chae Son National Park



람팡 라자밧 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과 함께한 3일간의 즐거웠던 시간! 태국에 와서 처음 도래들과 소통한 Camp였다.

첫 날은 모두 둘러앉아 Ice-Breaking 시간을 가졌다. 영어 노래에 맞춰 함께 춤을 추거나 게임도 하고 각 조의 친구들을 만나고 첫 도래들과의 만남에 굉장히 설렘이 가득했다.

둘째 날은 Chae Son National Park에 방문해서 보물찾기와 영어인터뷰게임도 하며 계란을 Hot Spring에 담가 삶아먹고 물놀이도하고 그림도 그리며 정말 단짝 친구들끼리 공원에 놀러온 기분이었다.

저녁에는 간단한 영어게임과 자기소개시간을 가졌고 교수님의 제안으로 그 친구들과 나이에 맞지 않지만 한국동요 '곰세마리'의 율동을 선보이며 함께 춤췄다. 다행히 모두 즐거워해주었다. 물론 처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친구들이 씨스타의 'Ma Boy' 을 요청해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곰세마리를 뻔뻔스레 열창했던 우리 태국팀이었다.

마지막 날은 지역봉사로 친구들과 댐을 건설하러 갔다. 처음으로 트럭 뒤에 타서 구불구불 산 길을 따라 달렸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톱질과 나무를 옮겼다. 우리가 만든 댐 덕분에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이곳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조에 들어가 각 조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봉사도 같이 힘을 모아 댐을 건설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nglish Camp > 특별부록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Mang-kud의 친구 Eng



내 친구 Eng이야! 람팡 라자밧대학교 영어교육과 2학년 생이지!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가득 하지? 함께 지낸 3일 동안 나를 놀리고 장난치느라 입을 수지 않았던 친구야. 피바, 롱랑, 슴땀... 한국말로 바보, 멍청이, 또라이 등등 장난스러운 말들을 참 많이 가르쳐줬지. 물론 나도 지금까지 잘~ 써 먹고 있어!
Eng 덕분에 태국 음식은 내가 제일 잘 할거야! 하하.

Ying이라고 태국에 인기가수의 노래와 춤도 알려주고 참 함께해서 즐거웠던 수다쟁이 Eng이였어.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다!

Ma-Muang의 친구 Mook

무앙이의 친구 Mook이라고 해! 보기와는 다르게 은은한 매력
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ㅎㅎ 한국어를 알고 싶다고 해서
많은 걸 가르쳐줬어! '나는 정말 예쁠니다', '바보' 등
등! 다음 날 나에게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글썄...

'나는 정말 바보입니다' 라며 나 진짜 바보맞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잘했다는 듯 자신감을 보이더라구. 생각보다
귀여운 친구야.. 다음 날 내게 복수를 하려고 하더라구? 태
국 전통 음식이라며 계란을 건네주는데, 나는 알고 있었어.
덜 익은 계란이라는걸. 하지만 지는걸 허락하지 않는 내 자
존심 때문에 맛있는 척 먹어줬어. 정말 고맙더군... 태국
어를 잘 모르는 나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주려고 노력하고 수
줍어하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말 걸어 준 Mook을 너희
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Ma-Yom의 친구 Tom



이 친구의 이름은 Tom!!!! 라따뚜이를 닮은 친구다. 초상권을 위해 특별히 얼굴이 다 보이지 않는 사진을 사용했지 ^_^ 영어캠프에서 나에게 처음 말을 걸어 주고 3일 동안 항상 내 옆에서 Mang-kud 예쁘다고 노래를 부른 친구지 (이해를 할 수 없음) 보기와 달리?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친구!!! 아쉽게도 마지막 날 페이스북 계정을 물어보지 못해서 페이스북 친구는 아니지만 잊을 수 없는 3일을 갖게 해준 소중한 친구이다.!!!

Ma-Prang의 친구 Alp



쁘랑이의 친구 Alp 를 소개할게. 영어교육과의 말언니답게 팀에서 리더 아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지. 모든 활동에서, 심지어 조그만 미니게임에서도 두각을 보이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구. 모든 팀에서 힘센 남자가 대표로 나왔을 때에도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여장부의 모습, 카~ 내 친구지만 정말 멋있지 않니? 이렇게 카리스마 철철 넘치는 말언니의 숨겨진 부드러운 면모... 바로 마쁘랑얌이!! 3일 간의 캠프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마쁘랑~ 마쁘랑~ 하며 날 불러제겼어. 게임을 할 때도, 보물 찾기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쁘랑~ Where are you? Come here! Stay with me.라고 말하며 뿌랑이얌이(?)를 했다구. 태국에서 엄마와 재회한 기분이랄까..^^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내겐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던 친구라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었어. 보고 싶어 친구야~!!



가장 즐거우면서도 아쉬웠던 시간을 가진 Camp였다. 한 번에 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맞닥뜨리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계를 형성 해야할 지 감이 오지 않았다. 혼자서 허둥지둥 고민하던 사이 웬일 인걸... 어느새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가득했다.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즐거운 시간 보내 또 고맙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게 느낀점, 내가 먼저 다가갈 순 없었을까?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엔 좀 더 관계 형성에 능동적으로 행하고 싶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 태국어가 서툴렀던 내겐 태국 친구들과 태국어가 아닌 영어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영어 캠프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시아의 친구가 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나의 또래들과 함께하는 시간. 게다가 한국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나는 같은 과 친구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들떠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캠프가 끝난 지금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이 3일간의 시간은 내게 아시아의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또래들과의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다.



태국에서 YMCA식구들 외에는 처음으로 사귀는 친구들이라 뭔가 더 친해지고 싶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욕심도 많았고 그만큼 기대도 컸다. 워낙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간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내 말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 위해 귀기우려주고 관심 가져 주니깐 나도 열심히 재미있게 참여 할 수 있었다. 이 좋은 추억이 오래 갈것같고 친해진 친구들과 오래 연락하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Inthanon 제 1부. 역경을 딛고...

들어가기 전에



→ Royal Project 상징마크



→ 왼쪽, 골든 트라이앵글 위치
오른쪽, Inthanon의 위치

★ 라운아디가 Doi Inthanon에 가게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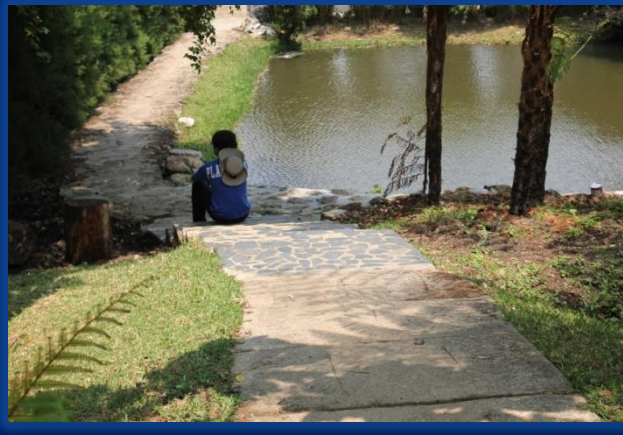
Royal Project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가 우리의 목적이다!!

★Royal Project란, 왕족의 국가 정책 중 하나로서 태국의 고지대에서 재배되는 아편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도의 골든 트라이앵글에 사는 태국 소수민족들에게 아편을 대신한 경제적인 작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Inthanon은 미얀마, 라오스, 심지어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민족들이 국경을 넘어와 살아간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승훈 단원이 곧 가게 될 강원도 철원 같은 존재라고 할까....) 직업 재할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마약 혹은 다양한 범죄의 예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의 보존까지 이루어지는 긍정적 사업이다.



Day 1 일째

첫 날, 우리들의 포근한(?) 숙소가 주어졌고 남자와 여자 단원들의 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리를 하기 위한 가스를 우리가 직접 갈아 끼우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물은 풍부했고 전기는 물론 여자 단원들은 침대까지 존재했으니까... 맛있는 저녁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이 흐르는 듯 하였다. 다음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Day 2 일차

Doi Inthanon의 Main Station 견학한 날! 망고와 복숭아, 딸기 등의 과일은 물론 야채, 버섯, 꽃 그리고 가축까지 약 170 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품목을 경제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구입한 말린 망고와 딸기를 먹어 본 결과 맛은 호불호가 갈렸지만 꽃의 아름다움과 과일의 신선도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상태였다. 기회가 된다면 모든 라온아띠 단원들과 간사님께 맛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망고보다 달콤한 태국팀의 마음으로 대신하기로 했음.

Main Station 견학 후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사건이 터짐을 알게 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숙소에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 Inthanon에서의 담당자 피솜씨에게 사태를 설명했지만 해결되지 못했고 다음날까지 씻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러나 이는 라온아띠에게 시작에 불과했다...



Day 3 일차

평소에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게 아침을 맞이하는 라온아띠였지만, 부시시한 모습으로 양과 소들에게 먹이를 주며 가축들의 사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들의 청결한 위생을 위해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양들의 집에 있는 변을 직접 치우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화분에 있는 묘목을 옮기는 활동을 했다. 영양분의 재공급과 더불어 자라는 식물의 집을 옮겨줌으로써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목적이라고 한다.

물이 쿵쿵 나오는 화장실 상태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였던 라온아띠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맛보게 되었다. 화장실의 물은 1초에 1방울, 약 2시간을 기다려야 1통의 작은 양동이도 채워지는 **단수** 상황. 게다가 비가 와서 **정전**인 상태... 깊은 산 속이라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을 맛보았다. 그나마 벽난로가 존재했고 불을 지펴 피나..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에필로그

아!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었네요. 로맨틱하죠... 태국에서 볼 수 없는 눈처럼 재가 이리저리 날렸는걸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장작 하나 패는데 30분이나 걸리고 손에 물집도 잡히고.. 다음 날 일어나면 극심한 뿌앗후아(두통)가 저희를 괴롭혔죠. 이래도 로맨틱한 것 같나요?(데헷-★)

Q.모닥불이요? 꽤나 로맨틱 했을 것 같은데요...?

Inthanon 제 2부. 사람과 우정 사이

Day 4 일차



이날은 Royal project에서 재배되는 식물을 우리가 직접 비료를 섞어만들고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했다. 각자 라온아띠 단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식물의 보금자리를 만들며 우리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가기를 기원했다. (feat. 소이산의 또 다른 씨앗들)

일을 끝마치고 tourist로 빙의된 라온아띠는 태국에서 가장 높은 해발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높은 산인 만큼 기온이 많이 내려가 태국의 열띤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숙소로 돌아가던 라온아띠는 뜻밖의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환영의 의미로 양고기를 주민들과 먹는다는 것. 아침에 먹이를 준 양을 저녁에 잡아먹는다니 식겁했던 단원이 있었지만 미안해하며 가장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주민들과의 식사였는데 간단한 술 한잔을 하며 친해질 수 있었다.





Day 5 일차

피곤에 찼어 있는 우리 라온아띠와 닭은 식물들에게 힘을 돌아 주기 위해 영양제를 뿌리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양들의 보금자리에 쓰일 대나무를 벌레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다는 royal project의 이념이 깃들어있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절대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대나무를 물에 던져두는 것만으로 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친환경적임을 강조하였다.

Inthanon에서의 활동에 지쳐갈 무렵, 저녁이 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Inthanon의 차가워진 공기를 따스하게 만들었다. 라온아띠의 엄마이자 보스인 피페와 산 캠프 식구들이 깜짝 방문을 했다. 허기진 우리의 배를 불러줄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있었고, 닭똥 같은 눈물 하나 흘릴 겨를 없이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였다.





Day 6일째

이 날은 피페와 하루 종일 함께하며 다음 달에 있을 홈스테이를 위한 덕담을 나누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어디서든 항상 웃어라'. '홈스테이식구들이 항상 우리를 환영해주며 웃음을 잃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너네가 웃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속상할 것. 항상 감사하고 즐겁게 활동하는 것 잊지 않길 바란다'. 잊고 있었지만 우리는 라온아띠,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임을 망각하고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자고 함께 굳은 다짐을 했다.





Inthanon에서의 마지막 날, 태국의 물 축제 송크란이 시작 되기 전 날이기도 했다. 이 날은 또 다른 **ECO 살충제**를 만드는 날이었다. 꽃잎을 갈아먹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벌레들이 싫어하는 생강과 강황을 이용하여 살충제를 제조하였다. 이 역시 친환경적이라 환경에도 좋을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이로운 측면을 강조하였다. 일이 끝난 뒤, **송크란의 시작**을 알리는(?) 마을 사람들의 잔치가 열렸다. 우리도 자리를 함께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 몫 하였다. 전 날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한 우리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지치더라도 함께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트럭의 트렁크에 얹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름 모를 라온아디 세 단원의 소소한 물 뿌리기 쇼가 진행되었다. 격하게 움직이는 트럭 위에서 '아직 물 한 병 남았다.' 라며 영화 '아저씨' 를 방불케 하는 특급 액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Day 7일째

힘든 점이요? 벌레에게 피를 헌혈했던거? 음식물 쓰레기 부패로 인한 냄새? 무려 20도의 일교차로 인한 추위? 다 힘들었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문제였어요. 산캠핑과는 달리 오직 태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만 바디랭귀지가 있다는 것! 하하(윙크-★) 결국에는 마을 주민이 우리에게 한 말... 푸약라우프안!(우리는 친구!)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관계 맺기에 성공했죠.

Q. 그 밖의 힘든 점은 없었나요?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깨달은 점은?



Inthanon에서의 생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점??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느림의 미학이라고 했던가, 재촉하며 바삐 살아가지 않고 내일의 일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롭고 편안했던 생활이 난 좋았다. 어느 장소에서의 생활 환경에도 금방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속에서 만들었던 나의 형이자 친구. 태국어만을 이용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지만 바디랭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고리의 끈이 1살 많은 형으로부터 우리는 친구라는 말을 이끌어 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 뿌듯했고 아쉬운 1점은 그 고리의 끈을 찾아내는 일에 점수를 부여하겠다!

인타논... 항상 편하게 생활하던 우리에게 불편함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 곳이다. 물이 나오지 않고,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벌레들... 하지만 난 솔직히 안타논에서 생활은 그저 오늘 밥은 맛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그 만큼 너무나 여유로운 생활은 내게 고민을 만들지 않았다. 난 안타논에서의 여유가 좋았고 나를 고민에 빠트리지 않아 좋았다.



인타논에서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 이었다. 한국에서 항상 바쁘게 살아왔던 내가 3월에는 여유로움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많은 여유로움이 몰려오자 또 견디기 힘들었다. 매일 밤 나의 내적 고민, '그토록 원하던 라온아띠였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나는 안타논의 아름다운 자연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살갓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뽕뽕이는 웅장한 산, 푸른 하늘, 예쁜 꽃들...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참 감사했다.



인타논... 나에게서는 너무도 길고 긴 시간이었다. 쓸데없다는 걸 알지만 산 깊숙한 곳에 온 만큼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잘~실천했다. 인터넷 대신 찾은 재미는 편지쓰기였고 하루에 한 명씩 친구들, 총 8명의 편지를 썼다. 마지막 날 그 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곳에서 내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구나.(그 것이 엉뚱한 생각일지언정) 나는 안타논에서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Songkran





여 기 서 잠 깐

송กรานต์이란?

러이그라통과 함께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인 '물의 축제'라고도 한다. 타이력의 정월 초하루인 송กรานต์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타이 주요도시에서 열린다. 어른들을 찾아가 음식이나 과일 등을 가져다 드리고, 새배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을 뿌리며 축복을 기원한다. 물뿌리기의 유래는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부처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청소하는 행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린다.

Day 1 일째



송크란의 첫날!!!! 우리 라온아띠 태국팀은 피똥 노먼 피씨야와 함께 우리 라온아띠에게 teaching skill를 가르쳐주셨던 아잔 아리의 집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라온아띠 태국팀은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 아잔 아리에게 전해 드리며 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welcome party에서 라온아띠를 환영해 주었던 JKY고등학생들과 람퐁의 사원을 방문했다. 한 해의 액운을 날려보내는 의미에서 부처를 씻으며 새해를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송크란의 하이라이트 거품축제에 참여해 엄청난 거품폭탄을 맞으며 송크란의 열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Day 2 일차



라운아띠 여자단원들은 람퐁에서의 송크란에 의한 극심한 피곤함에 지쳐 송크란을 즐기지 못하고 남자단원들만 **치앙마이 City** 송크란을 즐기기로 했다.

라운아띠 남자단원들은 **사오힌 YMCA의 인턴 사원인 풍 and 막과 오드**라는 친구들과 함께 트럭 트렁크에서 물을 뿌리며 행인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다. 또한 라운아띠 남자단원들은 거품파티에 참여해 수많은 태국 현지인들과 함께 물과 거품을 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크란이요? 유명한 문화 축제이죠. 하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스침이기도 했어요. 왜 스침이냐고요? 4월 첫날부터 송크란 전날까지 계속되는 캠프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송크란은 우리에게 달콤한 힐링이 되어주었죠. 고마워요 송크란.(피쓰-★)

Q. 라온아띠에게 '송크란' 이란?



백문이불여일견이랬다. 송크란, 그 재미는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 느낄 수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누가 먼저 물 뿌리나 서로 눈치 보며 축복(?)의 물을 뿌릴 때 꽤나 큰 희열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새삼 다시 느꼈지만 사실 친구들과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송크란’ 일단 기회가 된다면 태국에 와서 즐겨보라고 말하고 싶다. 난 태국에 오기 전부터 송크란을 기대하고 있었다. 송크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정말 즐거웠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송크란의 심을 정말 잘 즐겼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냈다. 내겐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온아띠 태국팀으로 배정받았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송크란 축제. 나처럼 정신줄을 놓고 즐긴다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난 송크란을 보내며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의 얼굴에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아주’ 강하게 쏘아아악! 뿌리는 모습을 보며 송크란의 위험한 측면도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신기했다. 처음 경험해보는 다른 나라의 축제란... 송크란에 대한 기대가 컸고 내 기대만큼이나 즐거웠던 축제였다. 다만 단 하루 열심히 놀고 난 다음날 아침 나는 기어서 화장실에 가야했지만 말이다. 더 큰 치앙마이 시티에서의 축제는 못즐겨서 아쉽기도 했고 송크란 기간 내내 동네 마실도 자주 나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좋은 휴식이 되었다.





CLP Campaign & Fundraising



“충격! 라온아띠 태국팀, 소음공해로 경찰에 잡혀가...?”



4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 태국의 MAEJAN WALKING STREET에서는 난데없이 한국의 전통 음악, 사물놀이 소리가 퍼져 울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에서 온 라온아띠(평균 21.7세)였다고 하는데 (...)

들어가기 전에

CLP(Cleft Lip Palate)란 ?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임신4~7주 사이에 입술(구순) 및 입천장(구개)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이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 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기는 입술 또는 입천장의 갈림증이다.

그럼 왜 ?

대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 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극히 드물게 유전, 임신 초기 약물복용 (항 경련제페니토인 복용)이나 엽산 또는 비타민C의 결핍, 저산소증, 홍역 등의 질병 등 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태국팀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650~1,000명당 한 명 꼴로 나타나지만 산부인과에서 바로 수술 및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태국의 경우 아이가 CLP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태국팀이 처음 치앙라이Y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때에도,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버리고 떠나는 부모가 많다고 했다. 또, CLP 환자들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병원에서 부모가 안 계셔 보호자 없이 홀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과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모금 활동, 그리고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자.



BEFORE

AFTER





대전YMCA에서 한달여간의 국내훈련을 받을때, 태국팀은 이미 CLP 캠페인을 진행해 본적이 있기에 **CLP가 낯설지 않다**. 태국 치앙라이 YMCA에서 CLP 캠페인 및 모금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기에, 직접 부딪혀 보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는게 어떨것냐는 전홍수 간사님의 의견으로 태국팀은 캠페인 활동을 준비했었다. 그리하여 태국팀은 사람들의 **CLP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간단히, CLP에 대해 알고있는지 YES/NO를 설문조사하고 모른다면 준비한 우드락을 보여주며 설명해드렸었다. 캠페인이 끝나고 설문 결과를 확인해보니, CLP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약 60%** 이상이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태국 치앙라이 지역과 달리 CLP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가 입천장이 갈라져서 태어나도 산부인과에서 바로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CLP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부족한 인식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캠페인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 활동이었다.



우리의 가장 큰 활동은 3차례의 CLP Campaign&Fundraising,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CLP를 실제적으로 더 이해하기 위해 4월 23일, 마쁘랑(재연)과 마음(승훈)은 피닛, 피디야와 함께 직접 CLP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 두 곳에 방문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Chiangrai Prachanukroh National Hospital. 이곳에서는 의사가 CLP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피치치료를 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한 명씩 보호자와함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혼자서, 30분간 발음교정을 받는다. 우리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단순히 수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 방문한 곳은 Overbrook Private Hospital. 이곳에서는 현재 CLP 치료를 하고 계시는 여러 **의료진들과 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우리는 치앙라이YMCA에서 도움을 받아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세트를 들고 한 가정씩 차례로 만나며 이야기도 하고, 생활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수술 자국이 덜 남아 있고 아기의 경우, CLP를 가지고 있었는지 조차 모를 만큼 깨끗한 얼굴이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였다.



<고민1>

캠페인 및 펀드레이징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드락에 어떤 내용을 넣어 전달할 지,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게임 등에 대해 한창 토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Y 스테프가 이미 자료는 충분히 있다며 그런 것들 대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라고 주문.

↳ 라온아띠 생각: 우리는 우리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는데, 그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수단' 으로만 요구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되었다.

<고민2>

만약 모금활동을 하면서 응원 메시지들을 모은다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응원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이 옳을까?

↳ 재연, 도완 생각: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도 힘을 북돋아주고 cheer up 해주는 건데 힘내라는 응원메시지를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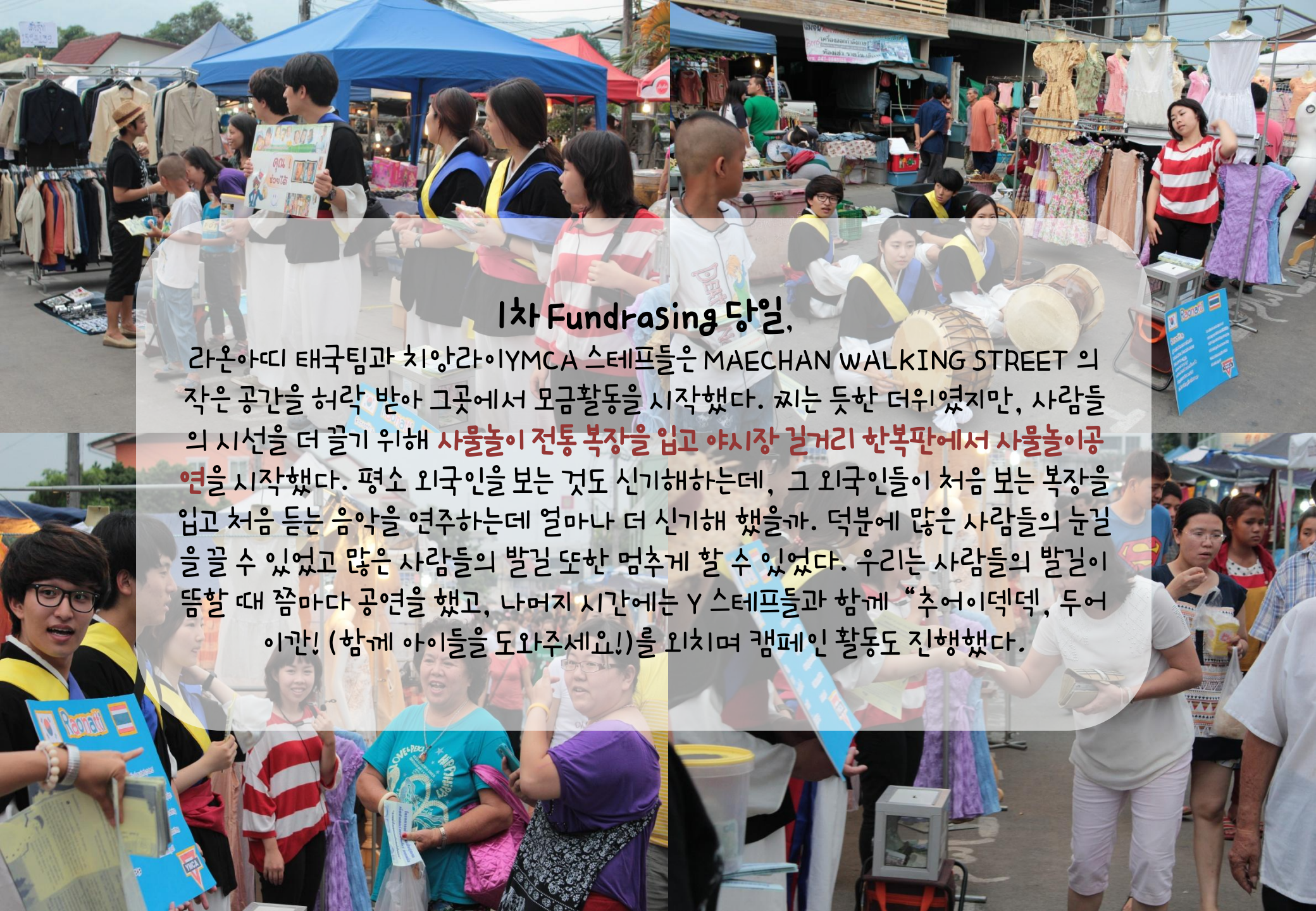
↳ 승훈, 다슬 생각: 정작 환자들 본인은 힘들지 않을 수 있고,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말 같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옳을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3>

그저 모금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도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 라온아띠생각: 간단하게 빈이나 열쇠고리를 만들어
모금을 해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자.





1차 Fundrasing 당일.

라운아띠 태국팀과 치앙라이YMCA 스텝들은 MAECHAN WALKING STREET 의 작은 공간을 허락 받아 그곳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찌는 듯한 더위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기 위해 **사물놀이 전통 복장을 입고 야시장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했다. 평소 외국인을 보는 것도 신기해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처음 보는 복장을 입고 처음 듣는 음악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더 신기해 했을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 또한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땀할 때 쯤마다 공연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Y 스텝들과 함께 “추어이덕덕, 두어이간! (함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를 외치며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다.



총 3시간, 8150 바트(252,650원) 모금



변화요?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캠페인 활동이나 모금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금을 해달라며 캠페인을 진행할 때, 무관심하게 지나치곤 했죠. 하지만 이젠 달라요. 직접 캠페인을 진행해보니,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에 돌아가서도 관심 있게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어요.(진짜루~★)

Q. 캠페인 후 라온아씨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나요?



CLP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많지만 딱 한가지! CLP 캠페인 정말 재미있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드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순간을 즐기고 함께 즐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힘들다는 생각은 커녕 짧은 시간이 아쉽기도 했다. 특히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기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어느 캠페인이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CLP 캠페인은 정말 보람찬 활동 이었다.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의 웃음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난 인타논에 다녀온 이후로 많은 대화가 없었던 우리 팀이 CLP 캠페인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남은 캠페인도 잘 마무리 하고 싶다. 태국팀 쑤쑤!!!



이번 CLP 모금활동에서는 단순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는 그 순간’ 자체를 즐겼다. 대전Y에서 배운사물놀이를 태국의 야시장 한복판에서 연주할 때마다 마치 문화사절단이 된 듯한 기분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누가 더 잘 웃어주나 귀여운 경쟁을 하기도 했다. 즉석에서 추는 춤, 급조한 율동과 노래는 덤. 캠페인과 펀드레이징이라고 해서 마냥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기 보단 재미 있고 UP된 기분으로 활동을 마치니 그 의미가 배가 되는 것 같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배우는 나로써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활동이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기준에 등록되지 않는 구순구개열은 2년간 배운 학교 수업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나 학교 축제 때면 항상 해오던 캠페인 활동이었고 모금 활동이었다. 물론 태국에서의 활동은 다른 점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얻는 지식보다 더 현실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고 좀 더 내 꿈을 확신하는 활동이 되었다.





Town Center Activities



Chiangrai YMCA에서 운영하는 Town Center는
한국의 어린이집과 비슷한 Day Care 프로그램과
Language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태국팀은 두 번의 Language School 수업 진행과
세 번의 Day Care 보조 교사로 활동했다.

Language School

7세, 8세 아이들에게 한국동요 '뽀뽀' 율동을 직접 만들어 가르쳐 주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뽀뽀(뽀뽀)이라는 단어에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재미있어하는 모습에 더 즐겁게 진행되었고,

Sankhampeang YMCA Language School에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곳에서는 함께 놀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아띠들은 많은 회의와 나눔을 나눴던 활동이었다.





Day Care

3일 간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2세, 3세 아이들과
놀아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재우는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활동이었다.
3세 반에 들어간 재연단원과 도완단원은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다소 과격하 놀이시간으로 힘들었다면
2세 반에 들어간 다슬단원과 승훈단원은 우는 아이를 안아 어르느라 힘들었다는...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기들과 함께한 활동은 처음이라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작은 미소에도 힐링이 되는 기분 좋은 활동이었다.





웃음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특히 아이들의 웃음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보는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 더 밝은 웃음 짓도록 함께 시간 보내고 싶고 더 기쁜 시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웃어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3살 짜리 아이의 어눌한 태국어 못 알아 듣는다고 아이에게 혼이 났던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난다. 으휴, 이쁜것!

3일 간 아이들과 함께 놀며 난 살아있는 장난감이 됐다. 난 아이들과 노는 내내 정말 즐거웠다. 잘 웃지 않던 나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들 덕분에 3일내내 미소를 유지 할 수 있었다. 3일간 데이케어 활동을 통해 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다. 아이들이 또 보고 싶다 ^_^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이케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의 경우 한 아이가 내게 안기면 다른 아이도 안기고 싶어 하고 그 다음 아이도...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질투심에 싸우고 눈물을 흘린다. 아직도 그럴 때의 대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5월에 갈 초등학교에서도 나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다. BUT! 아이들은 언제나 사랑스럽다♥



나는 아기를 낳는 것이 무서웠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잘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고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반에는 하루 종일 우는 아이가 있었다. 안아주니 울지 않는 모습에 울기만하면 안아주는 습관을 만들었다. 내가 떠난 후에는 그 아이는 울면 누군가는 안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울 테지만 그곳의 선생님들은 우는 아이는 안아주지 않는 룰이 있다는 것을 생각 하지 못했던 것이다. 죄송하다.ㅠ0ㅠ





Black House & White Temple





Black House

치앙라이 출신 예술가 ‘타완’ 이 죽음과 어둠에 대한 주제로 건축했다. 주제만큼이나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디들은 대형 구렁이와 악어 통가죽, 짐승의 두개골 등을 보며 죽음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Don’ t Touch’ 라고 쓰여 있지만 작품에 손을 대는 중국인들이 많아, 작년까지 작가의 요청으로 중국인의 입장이 불가했다고 한다.



White Temple

‘Chalermchai Kositpipat’ 예술가의 작품으로 사원의 모든 곳이 흰색과 함께 거울로 장식되어있어 햇빛에 반사되면 더욱 빛이 나는 사원이다. 치앙라이의 대표적인 사원이며 Black House와는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건축하였다. 천국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내부벽면에는 만화나 유명인사를 그려내어 죽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나타내고 있었다.



가족 소개



Sankhampaeng YMCA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피페

아띠들의 엄마
정신적 지주



피멍

산캄펑의 실세



피똥

아띠들의 코디
(똥보스)



피씨야

아띠들의 아빠
(마무앙의 짝사랑)



피낭

특급 요리사님
사..사랑해요



피카이

망쿠웃 전용
Mammy



피요

아줌마!
쏘맥 줘세요!



노언

아띠들의 멘토



피파이

알고 보니 한국인



글로이

다섯 번째 아띠



캠

피멍의 아들
머라카노!

Chiangrai YMCA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피웃

김치 마시껴



피랏

“아~러이?”
(맛있어?)



피혼

아띠들의 치앙
라이 코디



피뵤

순수한 먹보요정



피닛

이 목소리밖에
없다 ♪



피디야

웃어줘요
마쁘랑에게.. 제발

Saohin YMCA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룸메이트들을 소개합니다!



피샤

사오힌의 실세
마음과 애증♥



피팡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예쁘니간송



피넨

남자친구 있는
위너V



핑쪽

마쁘랑 비명제조기



뚝갸

마쁘랑 기절제조기



개인 에세이



김재연 (Ma-Prang)

1. 이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

영어 캠프 마지막 날이었다. 댐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가파른 산에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내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 같이 하자!” 라고 말해봤지만 위험하니까 앉아 있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중에는 나의 계속되는 “도와줄까?” 에 못이겨 그림 돌을 옮겨달라는 쉬운 일을 시켰던 일이 생각난다. 다른 팀원들에게 이 일에 대해 나눴는데, 다들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댐을 만들기 전까지는 동등한 친구로 대해줬다면,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손님 혹은 외국인 대접을 받는 듯 했다. 현실적으로 .. 이곳에서 나는 뭘까? 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4월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대학생 해외 봉사자? 아시아의 친구? 우리 팀의 커뮤니케이터? 여행 온 사람? 그냥 5개월 동안 살러 온 사람?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긴 하지만, 이 고민은 이곳에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2. 팀

5개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팀원들과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다 가는데 가족 같은 사이가 되고 싶다는 ‘관계에 대한 욕심’ 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태국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타지에서 함께 의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겐 더 소중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이미지에 우리 팀을 대입하려다 보니 그 ‘가족’ 같지 않을 때 혼자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3월에 비해 이번 달에는 많은 것을 ‘같이’ 하면서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가족 같다고기보단 ‘친한 친구’ 같다. 팀원 모두가 21살, 22살 친구들이듯 오랜 소꿉친구 같은 편안함이 있고, 끊이지 않는 장난과 농담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가끔 모두가 축 쳐질 때도 있지만 최연소 팀답게 유쾌하고 젊은 기운으로 넘쳐난다. 몇 일 전에는 승훈이가 마쁘랑이 누나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고...^^ 그래, 이게 우리 태국팀이고 이게 우리 팀의 색깔이 아닐까? 개인 에세이를 통해 부끄럽지만 고백한다. 이 과일(우리의 태국 이름)들이 사랑해!!

권도완 (Ma-Muang)

4월, 즐거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온 시간이었다. 캠프, 캠페인 그리고 인타논에서의 생활 등 어떤 상황이든 즐거운 시간이 계속 되었고 한달 간 고민되었던 두 가지, 관계 형성과 행복이란 키워드이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많이 숨긴 것 같다. 숨겨왔던 나의 똥끼(?)가 점점 노출되고 있다. 다른 단원들에게 낯선 내 모습이 이상하겠지만 그러면서 관계의 형성도 원활해지고 점점 행복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탓인지 아니면 태국이 내게 너무 편안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이 되었다. 편안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고민에 내가 찾은 답은 '웃음' 이다.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것

웃는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웃는 얼굴 싫어하는 사람도 없다. 2달 동안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 나를 보고 웃어준다는 것, 내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 요즘 들어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남을 웃게 만든다는 것이 나 자신도 웃도록 만드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함께 웃어서 행복하다는 것.

특히 이번 캠페인이 즐겁기 시작했다. 내가 행하는 캠페인을 위한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캠페인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 과연 내 행동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 이번 캠페인도 시작 전은 역시 그랬다. 하지만 캠페인 후 확실히 달라졌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물놀이 공연... 모금활동을 떠나 길거리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미쳐버린 똥끼를 발산시켰다. 미친 듯 팽과리를 울렸고 나름 귀여운 동요와 율동, 즉석에서 만들어낸 나만의 춤...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도 우리와 어울려 공연을 즐겼고 환한 웃음으로 보답해주셨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즐거움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믿었기에 모금활동의 과정이 더 신이 나기도 했고 결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난 더욱 미칠 생각이다. 귀여운 아이들과 어울릴 때, 친근한 내 또래들과 어울릴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어른들과 함께 할 때도 숨김 없이 나를 보여주고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예의는 꼭 지키고...) 평소 장난으로 한 말,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것. 이제는 장난이 아니다. 정말 행복은 웃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난 믿는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느 활동이든 활동도 중요하지만,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을 거다.

소다슬 (Mang-Kud)

또 이렇게 금방 한 달이지나 벌써 5월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나는 태국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 다른 팀원들은 뽀얀 피부인데 나는 벌써 현지인들과 같은 달콤한 초콜릿 색의 피부가 되었고 태국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태국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진짜 Mang-Kud이 되었다.

마냥 좋기만 했던 3월이 지나고 4월 시작부터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생겼다. 덕분에 4월 내내 나는 스스로를 위한 많은 생각의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을 잘 한 건지, 그냥 물 흐르듯 남들 따라 지내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3월과는 달리 나의 4월은 좀 더 나를 위한 휴식의 시간이었고 아시아의 친구 ‘라온아띠’가 무엇인가, 라온아띠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나날이었다. 4월 내내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결국 답은 그냥 밝고 즐겁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다하자는 거였다.

남은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낼 우리 태국팀이, 또는 내가 기대되는 4월의 마지막 날이다. 다가오는 5월, 우리의 소중한고 뜨거운 날들이 시작된다!

한승훈 (Ma-Yom)

Ma-Yom의 4월

태국에 온지 어느덧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머릿속이 많이 길었고 따가운 태양 덕분에 피부도 많이 검게 변했다. 이제 '안녕하세요' 보다 '사와디캅' 이 내 한국이름 '한승훈' 보다 '마욘' 으로 불리는 것이 이제 더 편하고 익숙하다. 이제 슬슬 태국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태국에서 잘 살다 오기... 출국 전부터 자주 듣던 말이고 항상 내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이다. 고작 2개월간 태국에 살아놓고 말하는 것이 성급해 보이고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태국에서 잘 살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다.

함께 산다는 것

4월 달은 정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한 달인 것 같다. 출국 전 캠프 나는 함께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 그냥 살다 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태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나를 4월 한 달간 정말 힘들게 만들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생각, 가치관, 심지어 입맛 까지 모두 다른 4명.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 솔직히 처음엔 이해 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이런 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다르게 살아온 4명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차근차근 팀원 한 명 한 명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나 자신도 조심스럽게 내려 놓았다. 아직 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서로 맞추어가는 것이 팀 아닐까...